

2024년 1월호 (제 229호)

소중한사람들

편지

하얀 눈 위에
내가 쓴 당신의 이름

깡이는
눈 때문에
지워지코 지워지코

이제
눈이 덮어도
꽃들은 싹 뜨고
얼음 속에서도
꽃들은 피어나겠지요

헤어지지 않으면
바라볼 수 없는
당신의 눈빛

사랑한다
감히 말 못하고
내 발자국만 남기고
갑니다.

시/ 유정옥

발행인 이성일, 유정옥

[소중한사람들]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· 전화 02-365-9106 · 팩스 02-365-9104 · www.ppp.or.kr

[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]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· 전화 031-582-0191 · www.pphealing.com

청평암환후 힐링센터



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



서울역 이야기

서울역 전도

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. 저희가 대접해 드리는 밥만으로는 그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.

노숙인분들께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소망을 드려야하기 때문입니다.

오늘도 그 분들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드리며 전도지를 건네 드립니다.

“예수님 믿으세요”



